처방약품 상위 10개 모두 "외제"

Pfizer의 노바스크 269억원으로 3.1% … 처방횟수는 국산이 1위

보건복지부는 2001년 10-12월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게 처방한 1만5258개 약품의 청구금액별 순위를 집계한 결과 상위 10개 약품이 모두 외국계 제약기업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4월26일 밝혔다.

이에 비해 처방횟수별 순위는 국내 제약기업 제품이 상위 10개 가운데 9개를 차지했다.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약품은 고혈압치료제인 노바스크(한국Pfizer)로 2001년 4/4분기 전체 약제비 8830억원의 3.05%인 269억원을 차지했다.

2번째는 난포호르몬제인 프리멜정(한국와이어스)이 전체 약제비의 1.5%(133억원)였으며, 다음으로 스포라녹스캅셀(한국얀센), 아마릴정(한독약품), 클리오제스트정(노보노디스크), 트리시퀀스정(노보노디스크), 크리멘정(한국쉐링), 코자정(한국엠에스디), 프리멜싸이클정(한국와이어스), 조코정(한국엠에스디) 순서였다.

처방횟수 면에서는 한미약품의 기관지약인 뮤코라제정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개당 건강보험약가가 노바스크(539원)의 6분1에도 미치지 못하는 82원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전체 약제비의 0.38%에 불과했다.

2위는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소염제인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다음으로 국산 약품인 액티피드정, 페니라민정, 메디락에스산, 코데날정, 푸라콩정, 슈다페드정, 베아제정, 지미코정 순서였다.

국내 약품의 약가는 베아제정(109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원 이하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약가마진이 사라지고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의사들이 고가의 오리지널 약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29>